

마이산(馬耳山) 정취를 찾아서

자유기고가 | 강 욱



한국에서 가장 특이한 산을 하나 지적하려면 전북 진안(鎭安)에 있는 마이산(馬耳山)을 드는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해발 400~500m의 고원지대에 말귀모양으로 뾰족하게 솟아 마치 마천루와 같은 모양의 이 산은 남쪽 기슭에 있는 탑사(塔寺)와 더불어 신비의 아름다움을 이루고 있다.

동봉은 숫마이산, 서봉은 암마이산이라고 부르는 마이산에는 전설이 깃들여 있다. 아득한 옛날 남녀산신이 살아 자식을 낳았는데 남신(男神)은 한밤중에 승천하자고 했고 여신(女神)은 무서우니 날이 새면 떠나자고 했다. 결국 여신 말을 듣고 새벽에 떠나려다 동네 아낙네에게 들켜 일은 수포로 돌아갔다. 이에 화가 난 남신이 여신에게서 두 자식을 빼앗고 여신을 발로 찬 다음, 그 자리에 주저앉아 바위산이 되어 버렸다고 한다.

그래서 지금도 마이산을 북쪽에서 보면, 동편의 아빠봉에 아기봉이 둘 붙어있고, 서편의 엄마봉은 죄스러움 때문인지 수치심 때문인지 반대편으로 고개를 떨구고 있는 모습이다. 전주에서 40km지점, 진안읍에서 3km 되는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이 기이한 형상의 마이산은 산 전체가 수성암으로 마치 큰 돌들이 시멘트와 섞여 굳어진 것과 같다.

전면적의 82%가 산인 진안은 전국에서 가장 깨끗한 자연환경을 유지하고 있는 청정지역으로 알려져 있으며 많은 볼거리를 갖고 있다. 노령산맥 줄기에서 가장 높은 산인 운장산(1,126m)이 동부 산협의 중심부로 우뚝 솟아 진안과 대야호의 경계를 이루고 있다. 험준한 협곡이었으나, 완주군 동상면 대야댐 쪽으로 길이 신설되어 30분 정도면 갈 수 있어 전주 쪽에서 운장산을 찾는 등산객이 늘어나고 있다. 한편 같은 산줄기 동쪽 10km 쯤에 잡은 구봉산(919m)은 칼날 같은 기암으로 된 아홉개의 봉우리가 뾰족하게 솟아 별천지를 이루면서 등산객을 유혹하고 있다.

진안읍에서 정천면을 거쳐 24km를 가면 주천면 소재지가 나오고, 여기서 서쪽으로 2km의 산협을 들어가면 깎아지른 절벽사이로 가까스로 길이 나오는데 여기가 대불계곡이다. 좁은 절벽 사이로 계곡에서 들리는 것은 오로지 물소리요, 보이는 것은 하늘과 구름뿐으로 운일암·반일암(雲日岩·半日岩)이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이곳은 우리나라에서 몇 째 안가는 심산유곡의 가장 깊은 곳으로, 흐르는 맑은 물은 금강 상류의 발원지가 된다. 또한 집채 같은 바위덩이가 저마다 다른 형상으로 웅크리고 있고, 바위가 뚫려 동굴을 이루는 등 그야말로 선경(仙境)을 이루고 있다.

다시 진안읍에서 상전면 쪽으로 무주(茂朱)가는 국도를 8km 쯤 가면 상전면 수동리가 나오고, 여기서 오른쪽으로 꺾어 금강 상류를 타고 4km 들어가면 죽도(竹島)의 절경이 나온다. 한 폭의 동양화를 연상케 하듯 높이 300m의 절벽 사이에서 쏟아지는 폭포수의 경관은 보는 이로 하여금 탄성을 울리게 한다. 죽도는 장수(長水) 방면에서 흘러오는 장수천과 덕유산에서 발원한 안성천이 파(巴)자 형으로 합류되는 지점에 위치해서 맑은 물이 한 바퀴 휘감아 흐르고 있기 때문에 마치 섬처럼 떠있는 곳이다. 또한 죽도는 '기축옥사(己丑獄死)' 때 정여립(鄭汝立, 1546-1589)이 아들과 함께 피신해 있다가 관군에 붙잡혀 사망한 곳이기도 하다.

여름 피서철에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 풍혈냉천(風穴冷泉)은 성수면 좌포리 양화부락 서쪽 대두산 기슭에 있다. 이곳은 한여름에도 찬바람이 스며 나와 20여평의 동굴 안을 섭씨 6도 정도로 유지해 주고 있다. 또한 풍혈로부터 30여미터 떨어진 곳에 있는 냉천은 사시사철 변함없이 섭씨 4도의 찬물이 솟아난다. 한여름에도 손을 넣고 1분을 견디기가 어려울 정도로 차가우며 피부병, 위장병 등에 특효가 있다고 전해온다.

진안읍에서 무주 쪽으로 20km 쯤 가다가 안성으로 길을 따라 8km 쯤 더 가면 동향면 대량리가 나

온다. 이곳에는 조선 태종의 어서를 보관한 어서각(御書閣)이 있다. 이 어서각에 보관하고 있는 태종의 어서는 ‘성석린 좌명공신 왕지’로 보물 제 746호이다. 또한 진안서 795번 도로를 타고 정천으로 가서 여기서 서북쪽에 있는 갈용리로 들어가면, 운장산 쪽으로 이어지는 길이 7km의 갈거리 안곳이 나온다. 깊은 골짜기로 이어지는 이곳은 원시수림이 우거지고 무장산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맑은 물이 피서객들을 유혹한다. 특히 가을철의 단풍은 절경을 이루고 있어 많은 관광객들이 몰려들고 있다.

마이산의 신비로운 아름다움은 흔히 ‘마이귀운’(馬耳歸雲)으로 표현된다. 즉 마이산에 구름이 걷히는 모습이다. 아침나절의 짙은 안개나 여름날 비구름에 가리웠던 마이산이 그 안개나 구름이 풀리면 서 본디 제 모습을 드러내는 광경은 실로 감탄을 자아낸다. 검푸른 두 봉우리가 시시각각 선명한 스카이라인을 그리며 하늘을 향해 오연히 솟아오르는 장면은 신비로움의 비경이다.

마이산의 동봉과 서봉사이의 협곡 같은 안부를 지나면 은수사가 나온다. 은수사는 조선시대 태조가 임실군의 성수산에서 돌아오다가 백일기도를 드린 곳이다. 경내에는 천연 기념물 제286호인 은수사 청실 배나무가 있고, 천연기념물 제380호인 죽사천 나무가 은수사와 마이산 주변에서 자생하고 있다.

은수사에서 마령 쪽으로 오솔길을 따라 내려오면 지방기념물 제35호로 지정된 마이산 돌탑이 있다. 주탑인 천지탑 2기를 포함한 80 여개의 작은 돌탑들로, 오랜 세월 강한 비바람에도 쓰러지지 않고 서있어 경이로움을 더해준다. 이 탑들은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자연석으로 축조한 탑군으로 신비와 아름다움의 극치를 이루며 슬한 전설을 안고 있다. 과연 이 많은 돌탑을 누가, 언제, 무슨 까닭으로 쌓았을까? 전해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1860년 전북 임실에서 태어난 이갑룡 처사가 스물다섯살 되던 해 이곳에 들어와 사람들의 죄를 빌고 창생(蒼生)을 구할 목적으로 30년을 하루같이 기도하며 돌을 날라 탑을 쌓았다고 전한다.

전주와 무주의 중간 지점에 위치한 진안은 인삼, 표고, 고추, 돼지고기, 흑염소 등의 농축산물이 유명한 고장이다. 특히 갓 나온 새끼돼지로 요리하는 ‘진안애저’는 예로부터 이 지방의 토속음식으로 이름났다. 진안은 전주를 경유해서 가거나 고속버스 편으로 금산으로 가서 진안행 시외버스를 이용해도 된다. 승용차의 경우라면 서울-대전-금산-운봉-대불리-진안으로 가는 코스가 있다. 